

## 유리제품 및 시멘트분야 표준화사업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 기획관리부 이유리  
02)3415-8706 orange@kicm.re.kr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원장 박계은)은 지난 2월초 계약을 체결한 <유리제품분야 표준화연구>와 <시멘트분야 표준화연구>등 표준화부문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시행중이다.

각각 10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쳐 올 12월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유리제품분야 표준화연구>는 제정 8종, 개정 10종 등 총 18종의 규격 재 개정(안) 도출을 연구 범위로 하고 있으며 건축용 유리 전반에 대한 자재 규격을 국내 실정에 적합한 규격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물이 도출되면 치수의 적합성이 확보되므로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설차 시공시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외국 규격과의 비교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국제규격과도 부합하는 (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정 규격은 △유리의 점성 및 점성 특성점 제1부 ~ 제8부로 8종이며, 개정 규격은 △보통 판유리(KS L 2001) △강화 유리(KS L 2002) △복층 유리(KS L 2003) △접합 유리(KS L 2004) △부늬 유리(KS L 2005) △망 유리(KS L 2006) △열선 흡수 판유리(KS L 2008)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KS L 2012) △열선 반사 유리(KS L 2014) △유리의 레이저 간섭법에 의한 균질도 시험 방법(KS L 2106)의 10종이다.

<시멘트분야 표준화연구>는 시멘트 분야의 시험 방법에 대한 다양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한국산업 규격을 개정하여 동 재료를 사용한 각종 요업 제품의 품질개선과 신제품 개발하는데 기반을 조성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중이다. 제품규격 14종과 시험방법규격 7종을 포함해 총

21종의 규격 개정(안)을 도출시킬 <시멘트분야 표준화연구>는 객관적인 품질기준과 시험검사방법을 확립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질한 제품과 시공을 유도하고 KS에 대한 신뢰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정될 시험방법규격은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의 백색도 시험방법(KS L 5113)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방법(KS L 5121) △공기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방법(KS L 5106)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KS L 5101) △석고 판재류의 물리적 특성 시험방법(KS L 5316) △팽창시멘트 모르타르의 역계 팽창 시험방법(KS L 5218) △석고 콘크리트의 물리적 특성 시험 방법(KS L 9204)의 7종이다.

이와 함께 연구될 제품규격은 △포졸란 혼합용 석회(KS L 5507) △석회 혼합용 플라이 애시 및 포졸란(KS L 5508) △시멘트 시험용 플로 테이블(KS L 5111) △석면 시멘트 관(KS L 5116)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KS L 5204) △세라믹 섬유 블랭킷(KS L 9104) △용수 처리용 생석회 및 소석회(KS L 9012)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KS L 5216)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KS L 5401) △플라이 애시(KS L 5405) △압축 석면판(KS L 5406) △규석벽돌 제조용 생석회 및 소석회(KS L 9010) △규산칼슘 제조용 생석회 및 소석회(KS L 9011)로 14종이다. ♣